

# 포항시, 철강·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AI 경쟁력 강화

‘경북 AX 인공지능 전환 랩’ 개소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 232억 투입  
K-DT 과정 운영... 전문인재 확보

포항시가 주력 산업인 철강과 이차전지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며 지역 산업 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조 현장에 AI를 접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최근 포항테크노파크에 지역 최초로 ‘경북 AX 인공지능 전환 랩’을 열고,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AI 솔루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2026년까지 약 232억 원을 투입해 GPU 기반 초거대 AI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2030년 AI 인재 10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한 인재 확보 전략도 병행한다. 포스텍 인공지능대학원과 산업인공지능 제조혁신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고급 AI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산업 고도화의 동력으로 삼겠다



포항시는 23일부터 북구청 문화예술팩토리 교육장에서 'K-Digital Training(K-DT) AI·빅데이터 전문가 13기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전략의 연장선에서 포항시와 경북대학교는 23일부터 북구청 문화예술팩토리 교육장에서 'K-Digital Training K-DT AI·빅데이터 전문가 13기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K-DT 과정은 첨단산업과 디지털 분야의 핵심 실무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 가운데 경북대학교 데이터융합연구원이 운영하는 과정은 '고성과 K-DT 과정'으로 선진계 지방 훈련기관 중에서도 성

과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13기 모집에는 약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2주간의 사전교육과 코딩 테스트,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23명이 선발됐다. 선발 인원의 약 78%는 비전공자로, 오는 8월 19일까지 6개월간 총 976시간 교육을 이수하며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AI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교육 과정은 AI 기초 이론과 프로그래밍부터 기업 맞춤형 프로젝트까지 전반을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교육

비는 전액 무료이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고, 우수 수료자에게는 경북대학교 총장상이 수여된다.

특히 이번 기수에서는 타 지역으로 진학하거나 취업했던 포항 출신 청년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 교육에 참여하는 사례가 두드러졌다. 포항시와 경북대학교는 수료 이후 지역 기업과의 채용 연계를 강화해 교육-취업-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경북대학교 K-DT 과정은 SL(취, 아진산업, 일지테크, 발레오모빌리티 등 지역 제조기업과 연계해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평균 취업률은 77.9%를 기록하고 있다.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은 “글로벌 AI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포항 출신 청년들이 지역에서 역량을 키우고 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진근 기자  
jinso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경북교육청

#### ‘신학기 준비 점검단’ 구성

경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안전·건강 관리, 고교학점제 안착 등 주요 교육개혁 과제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학 전 학교별 준비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분야는 신학기 학사 운영과 고교학점제, 수업·평가 혁신, 민주시민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방과후, 학생맞춤통합지원, 학생 안전·건강, 학교폭력 예방, 교원 교육 전담 여건 조성 등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 경남교육청

#### 교육 취약계층 지원 강화

경남교육청이 올해 85억 8000만 원을 투입해 교육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문화·탈북 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교육·문화·복지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지정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들이 학생 발달부터 맞춤형 사례 관리, 지역 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까지 현장 중심 지원 체계를 맡는다. /경남=이도식 기자

### 전남교육청, ‘악기뱅크’ 운영

전남교육청은 학교 내 유휴악기를 공유해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악기뱅크’를 운영한다.

‘악기뱅크’는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유휴악기를 통합예약시스템에 등록해 필요한 학교에 대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현악기·관악기·타악기 등 1000여 점의 다양한 악기가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220점이 대여 및 관리전환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악기뱅크’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학교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부산교육청

#### ‘미래아이유치원’ 8개원 선정

부산교육청이 놀이 중심 디지털·AI 교육 모델 확산을 위한 ‘미래아이(AI)유치원’ 8개원을 최종 선정하고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공모에는 47개원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종 선정된 8개원은 선도형에는 공립 강서유치원, 공립 방곡유치원, 사립 초록유치원, 사립 정관버들리유치원이, 성장형에는 공립 금곡나래유치원, 공립 남명유치원, 사립 민들레유치원, 사립 엘리유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부산교육청은 미래아이유치원을 통해 부산형 미래 유아 교육 모델 정립에 본격 나선다는 구상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북도는 지난 23일 국립경국대학교, 아마존웹서비스 코리아, 업스테이지와 ‘인공지능 혁신인재 양성 및 공공·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 경북도, AI 혁신인재 키운다

### 경국대·아마존 등 4자 업무협약 AI 분야 실무형 고급 인재 양성

경북도는 23일 도청 사립실에서 국립경국대학교,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 업스테이지와 함께 ‘인공지능 혁신인재 양성 및 공공·산업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를 위한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와 국내 인공지능 전문기업 업스테이지, 지역 거점

국립경국대학교가 힘을 모아 인공지능 분야 실무형 고급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실무 특화 커리큘럼 구성과 석·박사급 전문 연구인력 양성 ▲대학-기업 간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전환 산학 공동 프로젝트 수행과 성과 공유 ▲인공지능 전환 문제 해결 프로세스 구축과 현장 성과 확산 ▲기업 전문가 멘토링과 대학-기업 인턴십 운영 등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 부산시,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4.5배 회수

### 박형준 시장 “지역기업 투자 확대”

부산시는 2015년 출자해 조성한 벤처투자조합인 스톤브릿지이노베이션벤처투자조합이 올 10월 청산을 앞두고, 출자금 대비 4.5배 이상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합은 총 310억원(부산시 100억, 성장금융 100억, 우리휴쇼핑 100억, 스톤브릿지벤처스 10억) 규모로 결성됐으며, 현재까지 310억원 중 279억원이 배분 완료됐다.

시는 이미 90억원을 회수했으며, 올해 내 총 350억원(포드폴리오의 현 주가 수준 및 기대 수준 기준 회수 금액) 상당을 회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출자 원금 대비 4.5배 상당의 멀티플

(Multiple)과 15.18% 수준의 내부수익률(IRR)을 기록하는 성과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이번 대규모 회수를 계기로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회수 재원을 활용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성장펀드’ 공모에 참여해 기존 미래성장펀드·지역스케일업벤처펀드에 이어 1000억원 규모의 모펀드 조성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펀드 조성-투자 연계-후속 지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진주시, 우주항공 기업 유치활동 결실

### 하나에어로다이나믹스 본격 투자

진주시의 우주항공 기업 유치 활동이 실제 투자로 결실을 보고 있다.

시는 항공기 부품 전문 기업 하나에어로다이나믹스가 ‘경남우주항공공기산업단지’에 본격 투자에 나섰다 밝혔다.

하나에어로다이나믹스는 지난해 10월 경남·진주시와 투자 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1월 8일 부지 분양 계약을 맺었다. 같은 달 20일에는 추가 부지 확보 계약도 추진하며 중장기 사업 확장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시는 핵심 연구 개발 기능은 수도권에, 대규모 생산·시험·평가 기능은 진주에 배치하는 ‘기능 분산형 모델’을 통해 기업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할



진주시청 전경.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는 우주항공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인프라와 여건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 산업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진주(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의령군, 경남도 내 주거환경 만족도 1위

의령군민의 삶의 만족도가 경남 도내 최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일상적 걱정 수준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가 발표한 ‘2025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령군은 삶의 질 관련 주요 지표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2025년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도내 18개 시·군 2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주거·교통·소득·소비, 일자리·노동, 교육 등 5개 분야 120개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삶의 만족감 부문에서 의령군은 ‘최근 자신의 삶’ 6.8점, ‘전반적 생활’ 6.6점, ‘어제 행복’ 6.6점을 기록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부정적 지표인 ‘어제 걱정’은 3.6점으로 도내 최저를 기록, 높은 행복감과 낮은 걱정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뚜렷이 보여줬다.

주거 환경 만족도 조사에서는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만족도와 주차장 이용 만족도가 모두 도내 1위를 기록했다. /의령(경남)=이도식 기자